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고수온 피해신고 충남지역 현장점검

- 보령시 해상 가두리 양식장 고수온 대응상황 점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21일(금) 보령시 오천면 해상 가두리 양식장을 방문하여 고수온에 따른 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어업인을 격려했다.

국립수산물과학원에 따르면 8월 18일 13시 기준 충남지역(천수만)의 수온은 28.5℃로 평년 수온 대비 0.5℃ 높은 수온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충남 지역은 조피볼락과 숭어 양식장의 피해 신고가 집중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철저한 고수온 피해 예방·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폭염과 고수온 피해가 지속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점검과 대책 마련을 통해 현장의 어업인분들께서 겪고 계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해수부와 지방정부, 어업인이 서로 협업하는 동시에, 긴급 방류도 적극 권장하여 이번 고수온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라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기원 (051-773-5610)
	어촌양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범규 (051-773-5626)